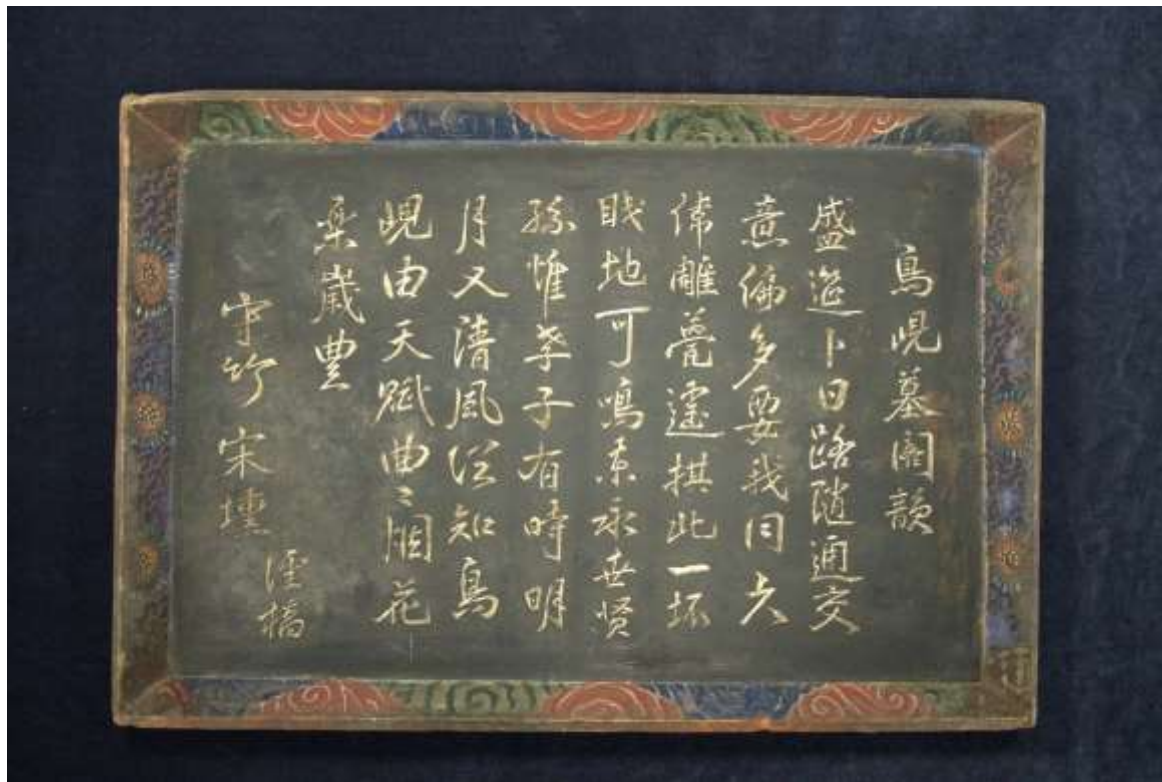


독립운동가 송진우 부친이 쓴 시판 새달 귀환

입력 : 2024-06-20 00:03 | 수정 : 2024-06-20 00:03



▲ 고하 송진우 부친 시판
'조현묘각운'(鳥峴墓閣韻) 시판

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송진우(1890~1945)의 부친으로 신식 학교인 담양학교를 설립한 송훈(1862~1926)이 쓴 시판(詩板)이 일본에서 돌아온다.

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9일 도쿄에 있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일본 사무소에서 소장자 김강원씨로부터 '조현묘각운'(鳥峴墓閣韻) 시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. 시판은 시문(詩文)을 써 넣은 현판이다. 가로 50cm, 세로 34cm 크기의 현판에는 전남 담양군 창평면 광덕리에 있는 옛 지명 '조현'(鳥峴)에 묘각(무덤 옆 건물)을 새로 지은 것을 기념해 후손이 번창하길 축원하는 칠언율시가 적혀 있다. 시문 끝에는 '수죽 송훈이 삼가 쓰다'(守竹宋燾謹稿)라고 작자가 명시돼 있다. 송훈은 사재를 털어 담양학교를 설립하고, 아들 송진우를 담양군 창평에 있는 영학숙에 보내 신학문을 배우게 한 선구적인 인물이다.

일본에서 고미술 거래업체 '청고당'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재단으로 직접 연락해 기증 의사를 전했다. 앞서 2022년 '백자청화김경운묘지'와 '백자철화이성립묘지'를 기증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. 국가유산청은 이날 김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. 기증받은 시판은 다음달 중 국내로 들여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한 뒤 추후 전시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.